

중고등학교 도서관 교육과정의 구성과 그 전개

정 의 순
〈성지 여자 중고등학교〉

1. 도서관 교육과정의 구성

책이 있다,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교육 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경험시킬만한 도서관 이용 교육의 과정을 부록 1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

대체로 크게 다섯 영역으로 묶은 바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것은 「독서」와 「조사활동」의 영역이며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도서 및 도서관 이용이 되겠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항상 따르는 위생문제가 여기서도 따르게 되겠다.

도서관 이용의 분야 도입에서는 처음 들어온 아이들을 우선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잘 이용할 수 있고, 끝까지 잘 이용할 것 결심을 디디게 하는 것이다. 도서관 순람, 열람규정등을 가지고 시작한다.

도서관 인식의 분야에서는 도서관이 어떠한 곳인가를 의식적으로 인식케 하며 「도서관」이란 것을 만들어 낸 「인간」이란 자가 무엇인가 특히 향상해 마지않는, 향상하고자 마지않는 모습에서 자신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연모 사용법의 훈련은 도서관 이용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어린 학년이라도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방법의 기술을 대개 고 1까지에서 완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서관 이용의 영역에서 책의 구성에 대한 지도도 어린 학년부터 할 수 있고 각부를 정해진 명칭으로 부르도록 할 것이며 그 쓰임에 대하여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수리는 비교적 간단한 수리를 중학교에서, 복잡한 것을 고등학교에서 함이 마땅하고 언제나 조그만 손질을 게을리 하지않는 마음의 태도를 기를 것이다. 글자문제는 독서의 능률과 크게 관계되는 것이므로

고학년에서 취급합적한 문제이다. 개인의 독서경험에서 출발하여 사회문제로, 또 민족의 문제로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

조사활동의 영역은 도서관 이용의 가장 찬란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 부분이 모든 학과에서 열매를 맺어 바로 그들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다.

조사도서들에 대해서는 가르칠 것이 얼마든지 있다. 구체적인 책에 대하여 구성, 특성, 쓰임, 체제, 부록, 서술태도, 색인 및 글자사용을, 잡지 신문등에 대하여 그 특징 학생의 정도에 따라 가르친다. 그리고 정확히 서목하는 방법을 익혀야한다.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사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알아들을만한 자료와 대결해야 하고 부득이 그렇지 못할 때는 지도자를 구해서라도 알아듣도록 할 것이다. 이 이해를 전제로 도서선택이나 독서법이 결과하게 된다. 연구주제에 맞고 자기 능력에도 맞는 자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편리한 자료를 구하도록 힘쓸것이다. 읽어내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보기, 넘겨 읽기, 접어 읽기, 정독 등이 섞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읽기의 연장인 요약, 노트트하기는 높은 지적 작업이다. 기록을 효과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낱장 사용이 권장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지식의 재구성 즉 연구, 이론바 창조에 속하는 일을 하게 되겠다. 이는 이 연구의 모든 작업중에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데라고 하겠다. 사색하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또다시 읽어보고 의문을 풀고 새로운 포인트에 착안하고…… 하는 사고안의 과정을 치르게 된다. 만족할 만큼의 논작이 끝나면 확정적으로 자료의 재구성을 하게 된다. 앞서 한 자신의 정신적인 소산을 바로 자기의 재산이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요. 어느 누구의 모방이어서는 가치가 없다. 다음의 작업

인 보고서 꾸미기 발표회 등은 저 연구의 그것만큼이나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 조직적인 사고 또 효과적인 표현이 필요하며 쓰기, 또 발표의 모든 기능이 높을수록 효과 많은 것이 되겠다.

고학년에서는 반드시 이런 알찬 학습의 과정을 가지게 할 것이요, 어린 학년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학습 방법들이 쓰여야 할 줄로 안다. 그러나 사실로 말해서 이는 학년이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실력이 말올하는 것이며 실로 알아들은 자만이 그 지식의 소유자요 실로 보배를 간직한 자만이 빛을 낸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정신을 집중하는 자, 왕성한 의욕을 가진 자, 올바른, 또는 예민한 판단을 가진 자에게 교사는 그들을 개발할 것이며 스스로가 그런 자 이기를 힘써야 하겠다. 설명 아닌 모범, 방편 아닌 지침, 응받이가 아닌 친절, 그래서 그들의 지성을 일깨워야 한다.

이제는 도서관 교육의 가장 중추인 독서의 영역에 이르게 되었다. 저 조사활동이 실용적이며 지적이며 소득적이라 한다면 이 독서의 영역은 여유적이며 인격적이며 관조적이라 하겠다.

여기서의 도서선택에서 특히 유의되어야 할 것은 양서를 알아볼 줄 알고 허구 많은 양서 중에도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인간으로서의 자세다. 이것만 배 있으면 도서선택이나 독서중의 성장을 믿어도 좋다. 또 독해력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 이전의 그 인간의 상태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며 독서해 가는 중에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 만큼 아직 성장 도중에 있는 그들에게 늘 일깨워져야 하겠다. 독서의 태도로는 다독과 정독으로 많이 말해지고 있고 「통독」「정독」「속독」으로 읽기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넉넉히 알아들어 읽어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음이 현명하다고 본다. 이런 「읽기」라는 정신활동의 과정에서 주제파악, 어휘확장, 사색의 심화, 경험의 확장 등 중요한 잠김 안에서 광장히 일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대결이요, 또 무척 신기한 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독서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고, 도서관 교육의 목적도 역시 별개의 것은 아니다. 독서로써 개발되지 않은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위대한 사람치고 독서를 힘입지 않은 이는 거의 없다. 또 악서로 인해 타락된 인간들은 그 얼마나 많은고, 값비싼 인간형성을 크게 좌우하는 독서지도는 교육에 있어 얼마만큼 강조되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독서기록은 독서를 즐기는 이에게는 대부분 즐거운 일이 된다. 또 배이론은 「기록한다는 것은 정확한 인

간을 만든다」고 했다. 읽는 중에 메모하는 방법은 읽은 후 독후감으로 쓸 수도 있고 독서일지를 계속 써 나갈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제도에서는 독서기록에 면밀한 지도를 가해 주기에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중에도 가능한 한 이 지도가 필요하다.

독서발표회는 신나는 일이기도 하다. 읽은 책에 대한 정리, 발표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다. 아무에게나 시키는 방법, 지명제 독서를 지정하는 식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발음 억양 태도 전체적인 짜임... 등에 주의할 것이요 듣는 이들의 비평을 또한 평가해 줄 것이다.

다음은 독서위생의 영역에 들어서 몸가짐 환경 행동책의 조건 등을 지도할 것이며 한번 지도한 후 늘 위생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 도덕의 항목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지도 되어야 하니 특히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2. 도서관 교육과정의 전개

그러면 이러한 도서관 교육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미국의 더글러스는 「독립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이나 교과교사나 사서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나갔을 때 비로소 그 필요성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였고 파이고오는 「미국은 처음 독립과정으로 다루었었는데 교과목과 결합을 이루지 못해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융합과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미와 가즈오는 「융합과정은 이상이지만 모든 교사가 도서관에 대한 제법의 지식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초기에 있어서는 독립과정으로 다루게 된다」고 하여 융합과정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사카모도 이찌로오도 융합과정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ALA에서 나온 Integrating Library Instruction이란 책은 융합과정으로 꾸며진 책인데 사서는 교과교사가 교안을 짜는데 의논상대가 되고 참고와 조언을 주며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직접 가르치는 책임은 교과교사가 지고 있다. 12시간의 오리엔테이션도 영어교사(즉 국어교사)가 하고 있다. 그 시간 배당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와 같은데 다융합과정으로 짜진 것이다. 일본에서도 사서도 도서관 시간의 거의 반 되는 시간을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두 나라가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증명은 안 되지만 새 풍조의 대표가 될만하다.

<미국의 예>

과목	학년				계
	7학년	8학년	9학년		
영 어	20시간	16	16	52	
사 회	12	15	15	42	
과 학	3	3	3	9	
음 악	2	1	—	3	
가 정	1	1	—	2	
계	38	36	34	108	

<일본의 예>

과목	학년				계
	중 1학년	2학년	3학년		
도 서 관	8시간	10	6	24	
국 어	9	3	3	15	
사 회	1	2	2	5	
영 어	1	1	0	2	
도 덕	1	1	1	3	
기 타	0	0	1	1	
계	20	17	13	50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지리학습을 하는데는 참고도서를 소개해 주고 설명해주는데, 또 이해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 지리교사가 가장 나올 것이다. 독립과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각 교과 담임과 긴밀한 연락이 있어 자료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융합과정이 더 쉬이 이 사명을 다할 것으로 본다.

융합과정을 이상으로 삼을진댄 모든 교과교사는 도서관 이용교육의 소양을 가질 것, 자신이 도서관 이용자일 것, 그리고 사서교사는 「학습」이라 이름붙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에 잘 통해 있어야 하며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모든 교사에게 사서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연수회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런 견지에서서임을 알겠다.

도서관 이용 교육은 모든 학과에 다 미칠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많이 혹은 적게 또 깊이 혹은 얇게 그 교과에서 기도하는 데 따라 적절히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예습으로, 또 어떤 때는 바로 문제해결을 도서관 이용을 하면서 얻기로, 어떤 때는 한 단원을 다 배운 후 더 학습의 확장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부록 2에 보인 것은 고 3의 생활과에서 「핵산과 유전」을 배울 때 여러 자료들을 소개해 주고 학생 자신이 취사 선택하게 한 예이다. 이러한 학습참고서란 편리한 것이 있다. 그런데 유전에 핵산이 관계하고 있다

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일로서 참고서에는 잘 없다는 것이다. 저들이 이것을 예습해 오게 되고, 수업 시간에 그들의 발표로써 오류는 시정되고 부족은 채워져야 한다 독해, 취사선택, 비교, 판단, 요약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또 하나 학생들이 연구제목을 결정하고 도서를 선택하여 연구해 나가는데 필요한 독서작업을 겪고, 후 정리하여 보고서를 꾸미기까지의 과정을 예를 들어 벌려 보기로 한다.

국어과에는 학년마다 국어생활에 관한 단원들이 나온다. 이 예는 고 2들이 교과서의 단원은 다 배우고 하나의 발전으로서 국어생활에 관한 어떠한 부면을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여 연구주제를 결정하고 연구의 모든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써 내기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한글날 발표하기로 하였다.

A, B, C, 세 학생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각각 「우리말의 특징」「세종의 한글 제정」「한자개혁의 역사」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연구의 제목을 결정하기까지도 많은 해법과 시행착오와 취사선택 등이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책을 뒤적거리며 제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목이 결정되었을 때는 도서선택도 어느정도 되어 있는 수가 많다. 도서를 선택함에 있어 아이들은 「국어생활」「국어」「우리말」「한글」 이런 말로 목록함을 찾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경우 「국어」는 「한국어」로 내고 있으니, 먼저 3가지 말로 찾은 아이는 언어 만나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서교사와 의논하게 되면 「한국어」란 표목을 가르침 받을 것이며 또는 목록함을 이리 저리 빼보는 동안 「한국어」라 쓰인 안내카아드가 눈에 뜨일 것이다. 「한국어」 또는 한글의 주제명 표목 아래 많은 책들이 있다. 또 부록 3에 보인 도보라카아드 모은 자료카아드를 보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료는 더 확장된다. 이제 실제로 청구번호를 보고 자료를 찾아가 책을 보고 읽을만한 책을 고르게 된다. 목록에는 제법 많은 책이 있지만 학생들의 정도에서 읽어낼 만한 자료는 얼마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그들이 교과담임교사나 사서에게 의논한다면 목록에서는 모를 다른 자료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A. 「우리말의 특징」이란 제목을 선정한 학생의 도서선택을 부록 4에 보였다. (신영한대사전)은 교사에게서 소개 받은 것이고 (지성의 오솔길)은 당사자인 학생이 자기가 전에 읽은 책인데 그 내용에 도움이 되는 데가 있겠다고 생각되어 고른 자료이다. B. 「세종의 한글제정」을 연구하기로 한 학생의 도서선택이 부록 5에 있다. (국어 조어논고)는 심히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지도교사는 이 책의 내용

을 꼭 아는 것이 좋겠다고 한자에는 음을, 한문에는 풀이를 붙여 주고 또 글의 난삽한 점은 학생의 질문따라 일일히 지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책을 선정함에 힘입은 것은 카야드의 「주기」이다. 끝머리에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란 친절한 주기가 성과를 낸 셈이다. C. 「한자개혁의 역사」란 제목을 선정한 학생의 도서선택은 부록 6에 있다. 「中國の文字改革」이 책을 선정하게 한 것은 교사이며 거기 참고되는 그림과 신빙성 많은 자료들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한 도서는 각 부록의 아래쪽에 보인 것 같은 정식서목을 해야한다.

다음에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세 아이중 C의 경우를 들기로 한다. 노트는 낱장종이(루우즈리이프)를 쓰기로 했다. 한 권의 책을 한 장의 낱장에 하는 것이 좋으나 분량이 많아 한장으로 안 될 경우에는 항목마다 낱장을 바꾸고 빈호를 찍는다. 그 첫장에는 서목을 해 둔다. 종이의 크기는 다 같은 크기라야 한다. 부록 7은 외대학보 3집에서 뽑은 것이고 부록 8은 (유네스코 한국총람)에서 뽑은 것인데 첫장에 서목을 담은 물론이고 낱장의 빈호에는 아까 외대학보의 것과는 다른 표식을 붙이도록 해서 후의 정리 때의 혼란을 피할 것이다. 부록 9는 (대백과사전) “한자”란 항목에서, 부록 10은 “일본어”란 항목에서 노트한 것이다. 부록 11은 (국어학사)에서 뽑은 것이다. 이렇게 읽고 또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부록 7에서 ④ 「한자간략화안 발표」란 지식을 얻었음을 보는데 「안」이란 도대체 어떠한 「안」인가 또 같은 낱장 몇 줄 내려가서 중공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병음화안(소리글자화안)이란 어떤 글자인가 이런 경우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이 질문해 올때 2차 3차적으로 자료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이미 선택한 것도 버릴 수도 있다. 마음이

찰 때까지 넉넉히 읽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다시 읽어 보고, 숙고하고 더 찾아보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 활동이 행해질 것이다. 이제 마음 속에 어떤 결론을 얻게 되고 제통이 서고 광명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 자기가 내린 결론과 얻은 지식과의 관계가 또렷해질 것이다. 여기서 자기로서의 재구성, 진진, 창의등이 이루어진다. 부록 12 참조.

머리 속에 선 계통에 따라 낱장종이를 재배열하고 자기의 생각을 보태어 그것을 배태삼아 보고서를 꾸미게 된다. 논문형식을 갖추어 쓰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인용 서술의 형식이나 여러가지 부호 기타 연구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부록13에 보고서를 쓰는 주의를 보았다.

발표회를 가진다면 그것은 열매가 많은 일일 것이다. 주의할 것은 자기의 결론에 대하여 자신이 있어야 하며, 또 듣는 이들의 흥미를 끌도록 시청각자료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기 읽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함이 좋을 것이다. 말하기에 대한 모든 주의가 다 그대로 발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학습의 최고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자발성을, 자율성을 기르기에 공헌하는 모든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3. 건 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읽을만한 책들이 너무나 적다. 국가는 문자정책을 결단내리기 전에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하루 빨리 문자정책이 선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 결단만 내린다 해서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넉넉한 기반 위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연구회 또는 위원회 등을 조직케 하여

1. 한자혼용과 한글 전용과의 능률문제
2. 문장의 쉬움에 대한 조사

를 행하여 출판계를 지도하여 국민일반이나 학생들의 계발이 가능하게 마련하여 주기를 바란다.

(부록 1)

지 도 내 용		중1	2	3	계	고1	2	3	계	총계
도서관 이 용	1. 도 입 { 시설, 자료, 열람규정	1 1			1	1			1	3
	2. 도서관인식 { 본교도서관론 본교 도서관의 목적 도서관의 역사 세계 도서관 현황 학교와의 독서시설	2	2	2	2	1	1	5	12	

3. 도서관연도	분류 배열 목록	1	1	1	3	2	1			
		1	2		3	1			7	19
		1	2	3	6	3				
도 서 용	1. 책의 구성 책 다루기 책의 각부 책의 조건	1			1					
		1	1		2	1			1	6
		1		1	2					
2. 도서 수리	펼치는 수리법 깨매는 수리법			3	3				3	6
							3			
3. 글자 문제	읽기 쉬움의 문제 기계화의 문제							2	2	2
조 활 사 용	1. 조사자료들 말사전 백과사전 색인 한자사전 연감류 잡지 신문 모은 자료 조사도서들, 참고도서들	2								
		2								
		1	6	5	18	8				
2. 연 구	도서선택 서목작성 독서법 요약 노우트하기 연구 (개인, 공동)	1								
		1								
		1					12	14	41	75
3. 정 리	보고서 발표회	0.5	1	0.5						
		2	2			2				
		2	3	5	16	2				
독 서	1. 읽 기 도서선택 읽 기	0.5		0.5	1					
		3	3	7	13	2				54
		2	2	2	6	1	13	11	28	
2. 발 표	독서기록 독서발표회	2	2	2	6	1				
		2	2	2	6	1				
독서위생		1			1	2			2	3

(부록 2)

교과에 있어 과제를 제시할때 도서를 소개해준 예

과학 고 3

핵산과 유전

◇ 유전학의 공헌한이들

「멘델」에 관하여

과학대사전. 학원사, 1962. p254.

「우장춘」에 대하여

아동백과사전. 평문사, 1964.

「모건」에 관하여

(같은 책)

◇ 유전에 관하여

대백과사전. 학원사, 1958~1962. 「유전」

과학대사전. 학원사, 1962. 「유전」「핵산」

圖說科學大系 4生命. 平凡社, 1959. p169~194.

백대현. 유전학. 민협출판사, 1961. 핵산, (색인 있음)

학술잡지색인. 1961. 1962.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핵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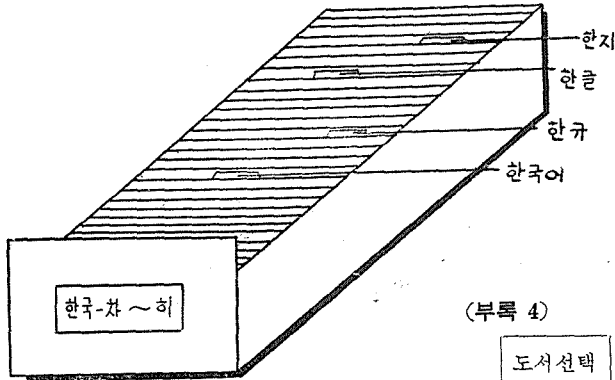
(여기 소개된 잡지를 구할 수 있으면 참조할 것)

모은자료 의학 「유전과 핵산」

(부록 3)

목록함 찾기

연구의 제목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서를 자기가 선택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꾸미는 예



(부록 4)

도서선택

연구제목 1. 「우리말의 특징」에서의 도서선택의 예

한국어	는 다음의 주제명도 보라
	한국어학
	한글
	○

Z 050	한국어 p71~73
유21	유네스코 한국총람편찬위원회 편 유네스코한국총람.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57. 736p. 26cm.
	○

한글	이 주제에 관한 것은 모은 자료함에도 있음 우리말
	○

811.4	
이 63	이 어령 지성의 오솔길 서울, 현암사, 1965. 324p. 19cm.
	○

한글	은 다음의 주제명도 보라
	한국어
	○

411.89	한국어—역사
김 67	김 윤 경 새로지은 국어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63. 408p. 21cm.
	○

423		
어 87	신영한대사전	서울, 어문각, 1964. 책머리에 : 영미어 해설

411.09	한국어—역사	
김 67	김 윤경	새로지은 국어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62. 408p. 21cm.

유네스코 한국총람편찬위원회 편, 유네스코 한국총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57. p71~72.
김윤경. 새로지은 국어학사. 을유문화사, 1963.
p8~12, 41~42.
이어령. 지성의 오솔길. 현암사, 1965. p124~146.
신영한대사전. 어문각, 1964. 책머리의 영미어 해설

이송녕. 국어논고. 을유문화사, 1961. p383~462.
최현배. 한글갈. 정음사, 1951. p37~49.
유네스코한국총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57. p76.
김윤경. 국어학사. 을유문화사, 1956. p39~41.

(부록 5)

(부록 6)

연구제목 2. 「제종이 한글제정」의 도서선택의 예

연구제목 3. 한자개혁의 역사의 선택의 예

411.51	한국어—어원	
이 57	이 송녕	국어조어논고 서울, 을유문화사, 1961. 462 13p. 21cm. 끝머리에 :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스 660	한국어—문자	
유 21	유네스코 한국총람편찬위원회 편	유네스코한국총람.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1957. 736p. 26cm.

스 060	한국어—문자	p76
유 21	유네스코 한국총람편찬위원회 편	유네스코한국총람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57. 736p. 26cm.

411.09	한국어—역사	
김 67	김 윤경	새로지은 국어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63. 408p. 21cm.

스 411.12	한국어—문법	
최 94	최 현배	한글갈. 고친 서울, 정음사, 4294 (1961) 710p. 21cm. 찾아내기 : p685~710.

412		
사네	を やとう, けりしう	中國の文學改革, 東京くるしお出版, 1958. 199p. 그림, 16cm.

030	
대 32	대백과사전 서울, 학원사, 김익달편, 1958~1965. 8책, 사진, 26cm —v1 ㄱ-강함-v2-목화-v3-문-석희 —v4 선-유덕-v5-유도-칭케 v6 ㅋ- 히토 -v7중보판 v8중보판 색2 ○

스 412.3	
장 51	장 삼식 대한한사전, 서울, 성문사, 1964. 1852, 128p. 27cm. 색인있음 ○

유네스코 한국총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57. p73~77.
대백과사전. 서울, 학원사, 1958~1965.
김운경. 새르지는 국어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63. p21~38.
장삼식. 대한한사전. 성문사, 1964. 부록
의대학보 제3집. 1962. p26~59.
をやとら, けりしう. 中國の文學改革. くるしお出版, 1958.

(부록 7)

노우트하기

연구제목 3. 「한자개혁의 역사」에서 [의대학보 제3집]에서 노우트한 예

①

의대학보 제3집. 1962. p26~59.
서론

일찌기 문자를 가진 큰 힘
그 선진성과 자대성
한자는 현대문학에 안맞음
소수의 독서인과 다수의 문맹을 만듦

②

1. 문자개혁의 배태기

노당장 1892 로마자식
왕 조 偏修式
노내선 (盧乃善)

강항호
유명양

③

2. 문자개혁의 싹이 트이는 시기
1912. 7. — 중화민국 탄생
회의에서 의견의 일치를 찾지 못하고
국음통일에 실패
注音字母의 탄생
國語 羅馬字의 탄생
라틴화 신문자 운동
識字運動

④

3. 문자개혁의 시험기

1. 간체자의 시험

1922 만주減省現行漢字的筆畫案
1934 搜探固有而較適用的簡體字案
1935 「第一批簡體字表」 324字
1953 簡體字研究委員會 조직착수 하려던 것이
좌절 반대이유 六書문제~그러나 교육적
가치 없음
1955 (중공) 한자간략화안 발표

결점 ① 同音代用으로오는 의미상의 혼동
閣合, 嚮向
② 現代語中心이어서 文言文에 치장
③ 同音代用の 不規則的인 운동
幹部—干部 幹流 軀幹
가치~병음화에서 교량적 역할

2. 중공의 병음화에 그 가능성

1956. 2. 中共의 文學改革委員會에서 發表
1년 7개월의 수정
1957. 11. 1. 中共國務院全體會議에서 통과
12. 11. 에 공포
가장 우수하다.

⑤

성공여부

상대적조건 (우수한 표음안, 강력한 정치적 배경)
절대적조건~미비

- 同音異議語처리 ○
- 音節에 관한 문제 ○
- 聲調表記…… ○
- 文獻정리 ×
- 方言統一에 관한…… ×

입말대상이라야

결론

한자의 공
중국 6억8천만의 이익위해 필수적

終於必廢而不能久存
暫時必存而不可遽廢

(부록 8)

연구제목 3. 「한자개혁의 역사」에서 도선 [유네스코 한국총람]에서 노우트한 예

①

유네스코 한국총람편찬위원회 편. 유네스코 한국총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57. p73~77.

서론 향찰이전의 글자

우리나라는 고도한 문화를 가졌음에도

○ 이두, 구결이 있었으나 큰세력 못가졌음은 중국 한자의 세력에 눌려서이다.

○ 훈민정음제정은 이후진을 창산하고도 남음

○ 고대에 있었다는 문자의 이름

① 王文의 문자

② 神話秘詞의 문자

③ 平壤法首攝의 碑石文字

④ 南海島의 岩石訓文

⑤ 고구려문자

⑥ 백제문자

1. 三皇內文

2. 神話秘詞文(平壤法首攝碑文字)

3. 王文文字

4. 나무에 새긴 글

5. 고구려문자

6. 백제 글

7. 향찰 남해섬

8. 발해글

②

신라표기법체계의 발달

신라가 가장늦게 한자를 수입

6세기이후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기교가가해짐 지명에서

ch	s	p, b ph	m	r l	t d	n	k (g)	母音	子音
	沙	波 巴	馬	羅	多	奈 乃	加 (伽)	阿	a
助	所	南	毛	老	刀 都	奴	古	鳥	o
主 (朱)	首	天 富	武	豆		仇	于		v
支	時	比	类 彌	里 利	知	尼	只	伊	l

받침이 특이한 것

ㅍ (<u>ㅍ</u>)	ㅂ (<u>ㅂ</u>)	ㅃ (<u>ㅃ</u>)	ㅅ (<u>ㅅ</u>)	ㅆ (<u>ㅆ</u>)
邑	陰	音	乙	叱

③

문장표현에서

1) 이자이미에서

一去乙 (거늘)

爲 一去乃 (거나)

(하) 一去乎 (거은)

一去乎等 (거은들)

一白乎 (삼은)

一白乎可 (삼어나)

一白乎可 (삼은가)

一白乎稱 (삼으며)

一乎乙 (오을)

一乎矣 (오대)

2) 명사와 토

一陰 (는)

父母 一乙 (를)

(부모) 一矣 (의)

一果 (와)

一叱分 (뿐)

一置 (도)

④

國語字形의 발달

이두 구결 君子北接 卍如水 ㄴ口

陰 卍 小人北接 卍如體 ㄴㄱ

乙 乙 君子 卍淡而成 ㄴ口

是 ㄴ 小人 卍甘而壞 ㄴ七스

匪 ㄴ ㄴ

飛陰 ㄴ 卍 별로 세력을 못잡은

爲古 ㄴ 卍 이유

爲尼 ㄴ 卍 우리나라 사람이 한문 실력이 높아

爲稱 ㄴ 卍 서 한문으로도 대부분 표현이 가능

爲尼羅 ㄴ 卍 했기 때문

爲也 ㄴ 卍

⑤

훈민정음 제정

시대적 배경

이조초기~윤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신숙주, 세종

세종의 사업

a. 문자의 제정~훈민정음 제정

b. 운서편찬~동국정음

제 정

① 혼소리

ㅏㅑ, ㅓㅕ, ㅗㅛㅜㅠ, ㅜㅠ

ㅓㅕ, ㅓㅕ

ㅓㅕ, ㅓㅕ

ㅓㅕ.....중성

—양성	양성	음성	중성
—음성	ㅏ ㅓ	ㅑ ㅕ	ㅗ ㅛ ㅜ ㅠ

③ 닿소리

	全清	次清	全陽	不清不陽	全清	全陽
업 소리	ㄱ	ㅋ	ㆁ	ㅇ		
헛 소리	ㄷ	ㅌ	ㄸ	ㄴ		
입술소리	ㅂ	ㅃ	ㅍ	ㅁ		
잇 소리	ㅈ	ㅊ	ㅉ		ㅅ	ㅆ
목 소리	ㅇ	ㅎ	ㆁ	ㅇ		
반헛소리				ㄷ		
반잇소리				ㅈ		

(부록 9)

①

대백과사전 5 643-645

기원 한차

창힐

온대초년 BC 1384

자료

육서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

②

상형 (象形)

日 ☉→☺→日

鳥

鼠

夔

魚

지사 (指事)

上 二

下 冫

③

刀→刃

木→本
未

전주 (轉注)

安—안전—안가

회의 (會意)

イ 言

イ 木

羊 (羊)

大

禾 乘 버를퀴다

秣→兼

祭

暴

형성 (形聲)

江河關圃

가차 (假借)

組約

뉴욕 제비바 日內瓦

③

갓수의 증가

BC 208-3,300 자

↓
1915-44,908

41,608 증가

④

자 형

古文…………

大篆…………

小篆…………

隸書…………

眞書…………

草書…………

行書…………

(부록 10)

한자개혁 운동

청나라 광서이래이 쇠퇴는 한자때문

구조의 복잡, 자수의 많음

개혁운동

에스페란토

포음간자

주음차모

국어로마자 제정공포 실시등

간자체

라틴화문자화

식기운동

附 일본 1800자의 당용한자

전폐한다는 것을 불가능

한국에 있어서의 한자

삼국시대

이두

1800자

⑥

대백과사전 5 p265~257.

일본어—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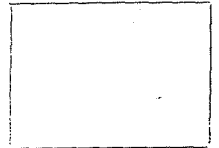
만요가나

히다가나—한자표체의 전부

가다가나—한자의 약 또는 一 部

가다가나

히다가나



(부록 11)

김윤경, 국어학사, 을유문화사, 1963.

1. 이두

설총이 정리
이두로 쓰인책

2. 입جت (國語 토)

생김때~분명치 않음
이두와의 다른점

이 두 입 겹

- | | |
|-----------------|---------------|
| 1. 독립한 문자 | 토 |
| 삼국초기에 생김 | 고려말에 |
| 2. 표음적이어서 읽으면 곧 | 한자의 구조 그대로 |
| 우리말이 됨 | |
| 3. 거꾸로 거슬러 생기기 | 거꾸로 거슬러서 새겨야 |
| 않음 | 할 경우있음 |
| 4. 처음 일반적으로 쓰일후 | 한학전공자들 사이에 만 |
| 5. 에 범위를 아꼈지만 생 | |
| 활에 쓰임 | |
| 6. 한자를 그대로 빌어옴 | 한자의 전가 약자 한글로 |
| | 쓰임 |

(부록 12)

재 구성

노우트한 낱장들을 맘대로 바꿔 배열하면서

서 론

한자의 공을 서술하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문자 생활을 보고저 함.

본 론

1. 중국 그림 글씨시대—갑골문자—金石文
—大篆—小

2. 우리나라 3세기 한자수입→이두의 창작

이두의 예

3. 일본 3,4세기쯤에 전해감→가나가다의 예

○ 문자계획

1. 중국 (최근 60년)

- ① 문자개혁의 배태기
- ②의 싹틈
- ③ 시험기

2. 우리나라

한자혼용 한글전용
(제한론) (폐지론)

3. 일본

약자 當田한자

결 론

문자생활에 대한 우리의 자각

(부록 13)

정 리

문장 만들기 분명하게
강조할 점을 뚜렷이
전체가 결론이란 초점을 향하여 통일될
것
전체의 구조를 짜인것으로

원고지 쓰기

- 맞춤법
- 띄어 쓰기
- 구둑점
- 단 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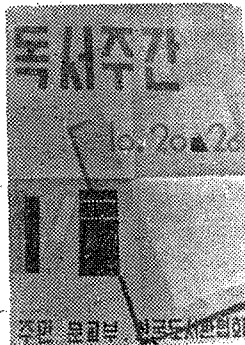
항목의 종속관계

그림도표의 삽입또는 부록으로 붙임



1959

- 같이 읽고
함께 건설
- 좋은 책 찾는 손이
북을 찾는다.



1960

- 책들고 찾은 나라
독서로 빛내 보자.
- 읽고 배워
바로 살자.



1961

- 좋은 책 등불삼아
밝은 살림 차려 보자.
- 한 사람씩 권하는 책이
만민을 깨우친다.